

광주시, 5·18사적지 29곳 일제 점검

41주년 기념행사 대비 환경정비 동시 진행

5월 이전 시설물 보수·정비 완료할 계획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다음달 1일 까지 5·18사적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전역의 5·18사적지 29곳과 표지석 등의 시설물을 자치구와 교차 점검해 시설물 훼손유무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다가오는 제41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한 환경정비도 동시에 진행한다.

사적지 점검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 제4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 이전에 시설물 보수·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옛 국군광주병원을 포함한 505보안부대 옛터, 옛 광주직접사병원과 같이

통제면적이 광범위하면서 원형복원할 건축물이 있는 사적지는 5·18단체, 위탁경비 업체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종원 시 5·18선양과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제41주년 기념행사에 국내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5·18사적지는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이자 지켜야 할 자존심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의 큰 자산으로 시민 모두가 사적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시청앞 상무대 옛터 사적지 표지석.

동구, 쓰레기가돈이 되는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

광주 동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회수로봇 ‘네프론’(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을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지구 주차장에 2대, 지원1동 재활용품네마당에 1대 등 모두 3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네프론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자판기 형태의 자원순환 회수로봇이다.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후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센서가 인식해 품목별로 압착 보관하고 입력한 전화번호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서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MOU체결

광주 서구가 지난 19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 추진을 위해 37명의 작가들로 이루어진 상무이음매(대표 김상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구가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은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역사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무대 옛터, 서구이음길 중 518역사길 일부 구간에 회화,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구성, 최종적으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기여를 골자로 하고있다. 지난해 9월 사업수행 작가팀을 모집, 상무이음매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주민의견을 수렴교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2월까지 사업안료를 목표로 내실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구, 화장실 몰카 탐지기 대여 서비스 실시

광주 남구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장실 몰카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는 21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장소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20대를 마련,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북구, 위기 청소년에 생활비·학비 등 지원

광주 북구는 다음달 9일까지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건강검진비, 학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로 비행과 이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별 월 10만원 이내부터 연 350만원 이내 급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72%(생활, 건강지원은 65% 이하) 이하 가구다.

광산구,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선제적 검사 확대

광주 광산구가 긴급대책을 수립해 외국인주민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선제적 검사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곡동 고려인진료소에서 외국인주민 대표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외국인주민의 검사 편의를 위해 23-24일 고려인마을, 21일 하남산단, 22일 평동산단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일요일인 24일에는 외국인주민이 송금 등으로 많이 찾는 우산동 하나은행 광산지점에도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500억’ 국고 건의

매년 20개소 100억 5년간 지원

전라남도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과일·채소류 학교급식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500억지원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 6천여ha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비가 67%로 가장 많고 고구마·감자 등이 28%, 과일과 채소류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친환경 과일·채소류의 소비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전라남도는 3년 전부터 자체사업으로 매년 30억원을 투자해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최근 대도시 소비자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과일, 채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발굴해 추진했다. 이 같은 결과 지난해말 기준 친환경 과일은 2019년보다 93ha, 채소류는 508ha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친환경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친환경 과일과 채소류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한 국비가 반영되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0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100억 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젊은층 중심의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선호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확대 조성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소비자 선호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생태계교란 생물퇴치로 토종 서식지 보존·고유 생물자원 보호 추진

광주광역시 5·18사적지를 보존하고 고유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생태계 교란 생물 확산·급증에 따른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2019년부터 매년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은 선정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생태계교란종의 서식지 조사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을 병행해 생물자원 서식지를 보호하

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시는 2월말까지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와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제거) 등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다. 신청서는 22일부터 2월5일까지 우편 또는 시 기후환경정책과 방문 접수한다.

광주시, 설 대비 배달전문 음식점 특별점검

광주광역시 5·18사적지를 보존하고 고유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선정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생태계교란종의 서식지 조사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을 병행해 생물자원 서식지를 보호하

이에 설 명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명절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달 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달앱 등록 정보와 영업신고 내용 일치 여부 ▲음식

점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검토 후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국전문직업재단
Korea Prof.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 야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제1번을 고려합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단66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용순 (570127-2667719)
최 후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재길 1-10

위 망 김용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1월 22일

공 고 인 : 박미정, 박기운, 박미화, 박기성
주 소 : 울산 중구 운곡4길 18(다운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1월 14일
공 고 기 간 : 2021. 1. 22 ~ 2021. 3. 22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2분위	1.1배	1.7배	2.1배
3분위	48,103원	26,697원	18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